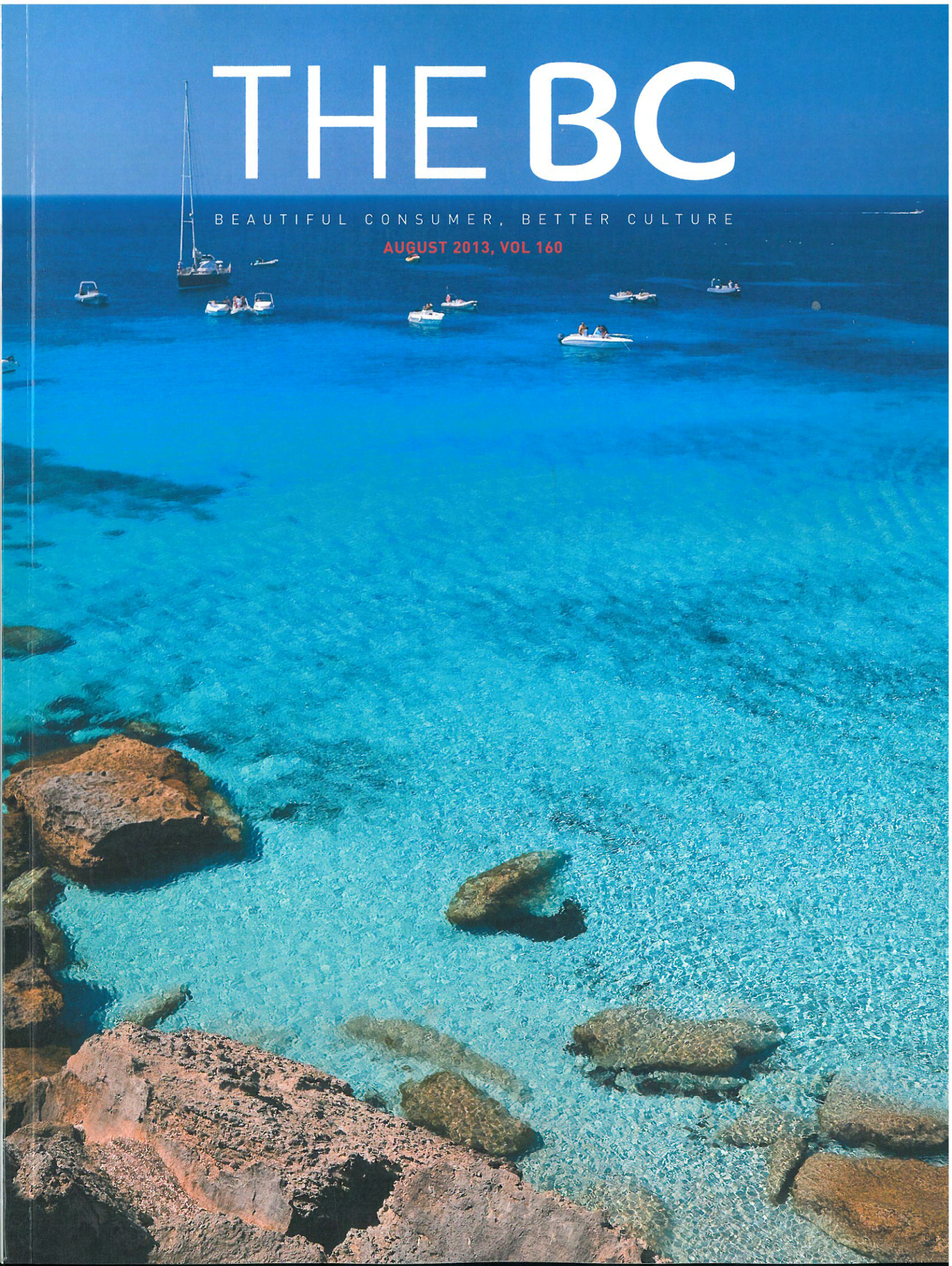


THE BC

BEAUTIFUL CONSUMER, BETTER CULTURE

AUGUST 2013, VOL 160



이영숙 캐나다관광청 실장

올 1월, 에디터에게는 복권과도 같은 행운이 다가왔다. 캐나다관광청에서 주최하는 신년 행사의 경품 이벤트에 1등으로 당첨된 것! 1등 상품권은 바로 캐나다 왕복 비행기권과 호텔 숙박권. 마치 국제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에 이름이 호명된 것처럼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다. 아껴두었던 비장의 카드를 꺼내 가장 날씨 좋은 7월, 밴쿠버를 다녀왔다. 환영 인사하듯 돌아오는 날까지 흐린 날 하루 없이 쾌청함을 자랑했던 밴쿠버의 날씨는 더없이 사랑스러웠다. 이번 여행에 도움을 준 캐나다관광청 이영숙 실장에게 최고의 선물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배꼽 인사를 드린다.



류현정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제는 마치 <THE BC> 패션 화보팀의 가족 같아진 그녀, 류현정. 그녀는 사실 업계에서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베테랑 메이크업 아티스트다. 에디터가 체크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신경이 곤두서기 마련인 화보 촬영장에서도 그녀가 있으면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듯 든든하기 그지없다. 척 하면 척, 이제 눈빛만 봐도 통하는 사이가 된 건 단지 오랜 시간 맞춘은 호흡 때문만은 아닐 게다. 그녀의 빛나는 감각은 이번 달에도 '오피스 룩'에 포인트가 되는 시크한 스타일로 멋지게 표현되었으니, 그녀의 아티스틱한 작업들을 오래오래 만날 수 있길 바란다.



이혜진 룡삼 코리아

8월호 <아카이브> 칼럼을 위해 룡삼 코리아 이혜진 대리로부터 브랜드의 역사가 담긴 정보를 전달 받은 후 에디터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입사한 지 고작 한 달 남짓 됐다는 것. 브랜드에 머문 기간과 상관없이 이미 그녀는 ' 룡삼의 사람'이었다. 룡삼 제품 중 르 플리아주 꾸르 백을 가장 좋아하고, 울어름은 주말마다 팥빙수 맛집을 순회한 후 옥토버 페스티벌이 열릴 즈음 독일에서 늦은 휴가를 즐길 계획이라는 그녀 덕분에 일하는 내내 유쾌하고 즐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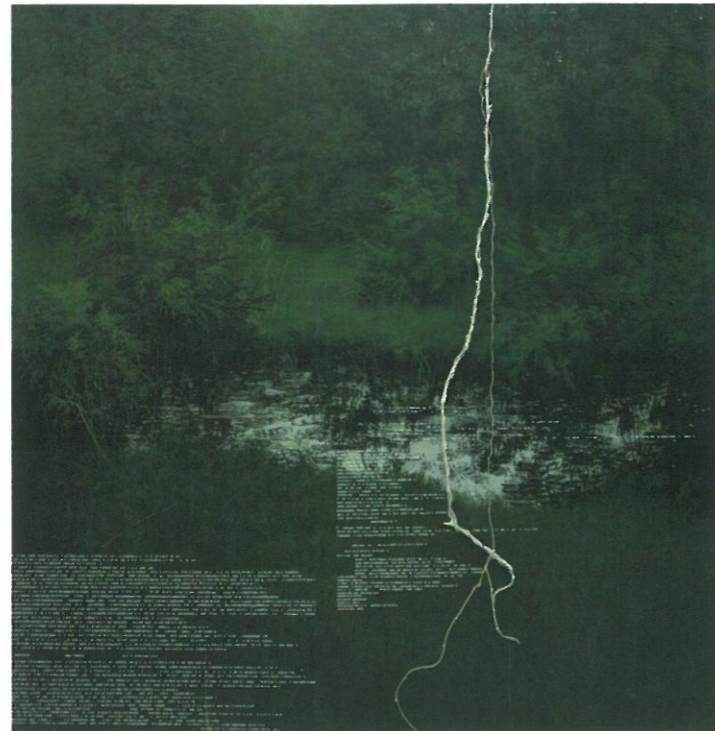
전민경 국제갤러리 마케팅 디렉터

평소에 그림에 관심이 있다는 이유로 덜컥 갤러리 기사를 맡은 에디터. 하지만 막상 진행하려고 보니 막막하기 그지없었다. 아는 작가라고는 교과서에 이름이 나오는 작가들뿐, 최신 동향에는 무지했기 때문이다. 이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준 사람이 전민경 국제갤러리 마케팅 디렉터였다. 국내 대표 화랑의 디렉터답게 미술계의 흐름을 반영했을 뿐 아니라 독자들에게 힐링의 체험을 선사할 아름다운 작품들을 선정해 친절한 설명과 함께 보내 준 그녀. 단순한 작품 나열이 아니라 고심 끝에 근거 있는 작품들을 추천해 준 정성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덕분에 참 좋은 작가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 그녀의 심미안이 궁금한 독자들이라면, '힐링 갤러리' 기사를 눈여겨보시길 권한다. 직접 국제갤러리로 작품들을 만나러 가본다면 더욱 좋겠고.

Healing Gallery

예술로 마음을 치유하다

파블로 피카소가 '예술의 목적이란 영혼에서 일상의 먼지를 털어내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예술에는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 속으로 떠나는 힐링 여행.
에디터 홍혜원 자료 제공 국제갤러리 www.kukjegallery.com 도움말 전민경 국제갤러리 PR 디렉터



<To Last-Oblivion>, 2012 acrylic and mixed media on canvas, 260 x 235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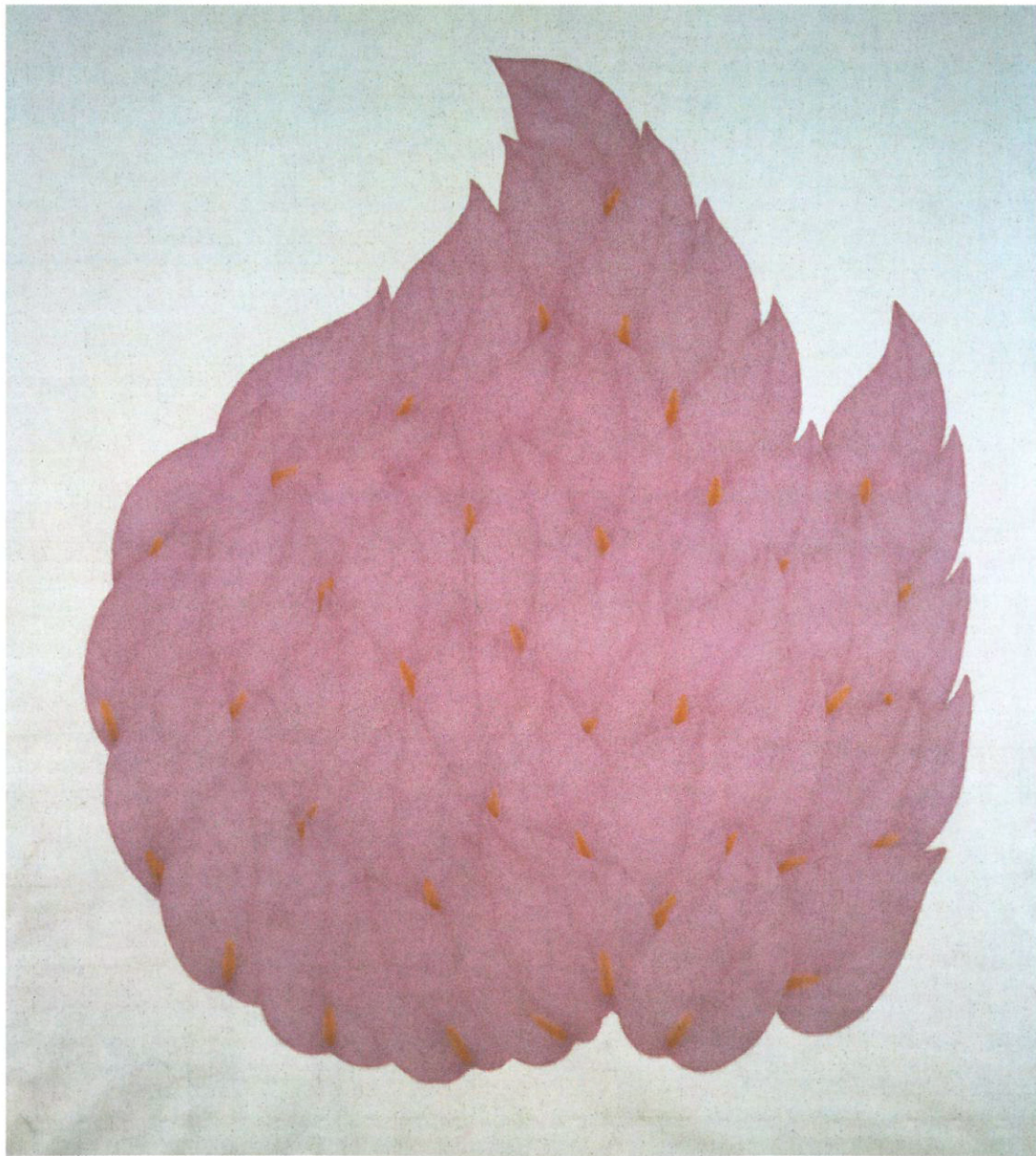
이기봉 作 향수

마치 낮선 숲에서 잠들었다가 막 깨어난 듯한 풍경. '21세기 몽환가'라고도 불리는 작가 이기봉의 작품 <향수>다. 이기봉은 섬세한 서정성과 독특한 개념을 바탕으로 씩 없이 작업해온 중견 작가다. 그는 세계의 본질을 '생성과 소멸, 순환'의 구조로 보고 순환하는 세계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사라짐'이라는 주제를 탐구해왔다. 그가 표현하는 '사라짐'은 하나의 물리적 현상인 동시에 아름다움과 매혹, 판타지 등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캔버스와 플렉시 글라스 위에 펼쳐진 이미지 속에는 현실에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세상이 묘하게 공존한다. 작품마다 뚜렷하게 느껴지는 안개의 느낌은 먼 것과 가까운 것, 정신과 물체라는 상반된 것들을 뒤섞는다. 그 실체를 잡기 힘든 몽환적 시공간은 물리적 차원을 넘어 초월의 세계로 관객을 이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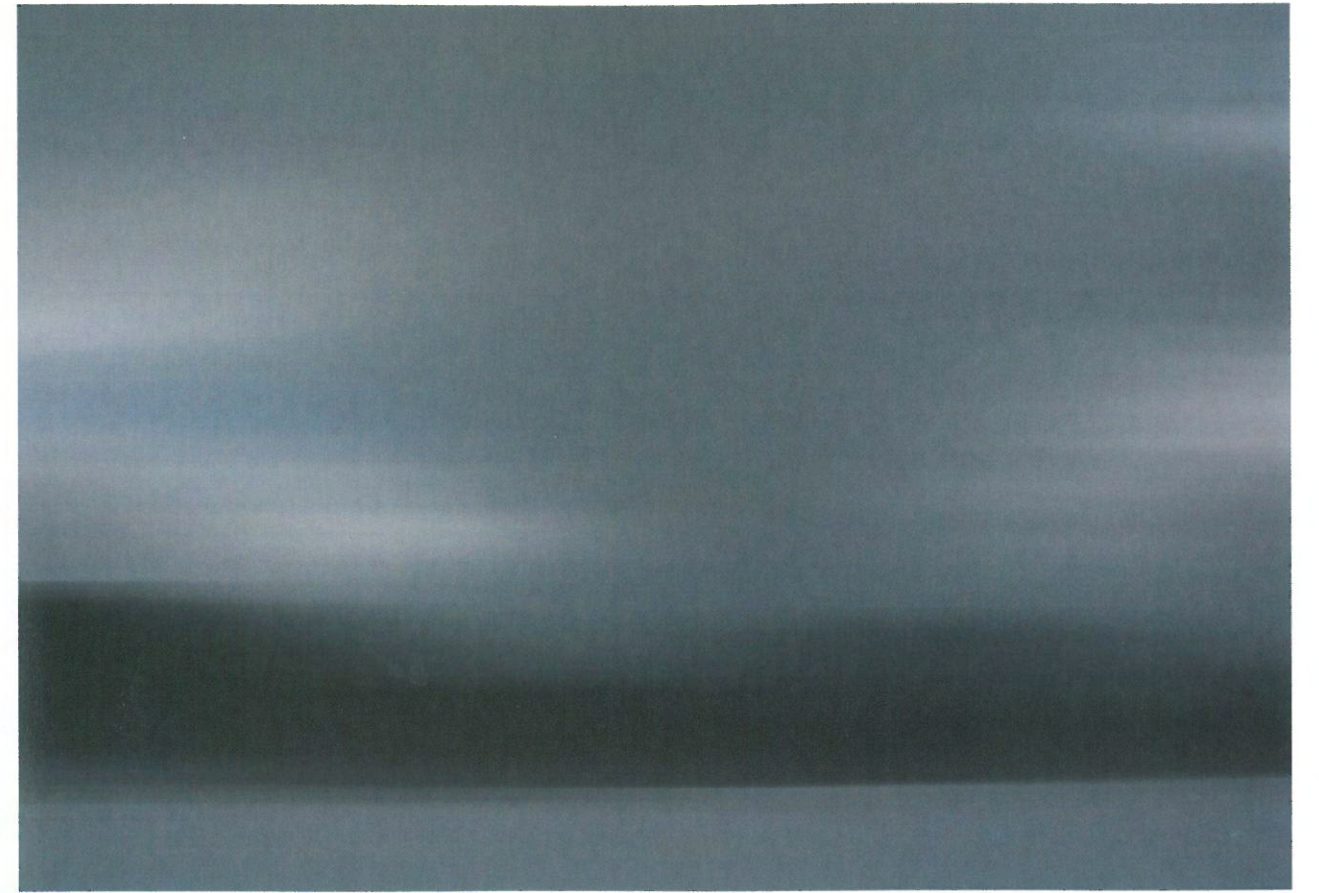
<Nostalgia>, 2011 Acrylic, plexiglas and mixed media on canvas, 244.5 x 182 cm

김홍주 作 무제

미술계의 트렌드와는 상관없이 끈질기게 회화의 본질을 추구해온 작가 김홍주. 그는 얇은 붓과 정교한 손놀림으로 가장 얇게 덧칠해나가며 작품을 완성한다. 머리가 아닌 몸으로, 그리고 오랜 시간을 들여 회화의 가장 근원적 방식인 '그리는 행위'를 실천하는 것이다. 1970년부터 다양한 소재를 다뤄온 그는 꽃 그림 작가, 글자 그림 작가 등 수많은 별칭으로 불려왔다. 그중 꽃과 풍경을 소재로 한 세밀화들은 회화의 본질에 대한 탁월한 이해와 세련된 감각이 결합돼 국내외 평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작가는 그림이란 상징이나 메시지를 전달하기 이전에 어디까지나 '시각적 대상'임을 강조하며, 관람자에게 어떤 의미도 강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의 작품 제목은 대부분이 〈무제〉다. 그림이 지닌 순수한 시각적 미감을 느끼며 진심으로 '감상'하는 기회를 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김홍주의 작품을 제대로 체험하는 방법이다.



〈Untitled〉, 2009 acrylic on canvas, 143 x 146 cm



〈The other side of illusion 10030170150520〉, 2010 C-print, 100 x 143 cm

최재은 作 현상의 이면

최재은은 조각, 설치뿐 아니라 건축, 사진,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작업해온 개념미술 작가다. 그녀가 지난 30여년간 한결같이 다뤄온 주제는 바로 '시간과 생명'이다. 그녀는 주로 식물, 물, 공기, 불, 땅과 같이 가공되지 않은 재료를 작품에 사용하는데, 〈현상의 이면〉 시리즈에서는 여기에 '사진'이라는 형식을 덧붙였다. '시간'이라는 주제에 천착한 〈현상의 이면〉은 깊은 숲 속에 들어가 촬영한 여름 풍경과 멀리서 전체 산을 조망해 촬영한 겨울 풍경을 담아낸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장시간 노출로 얻어낸 이미지들은 사진이 아니라 자연이 그려낸 한 폭의 추상화처럼 보이기도 한다. 사진의 형식을 빌어 계절의 변화라는 긴 시간을 하나의 이미지로 축약해 구현한 것. 이처럼 보이지 않는 개념을 시각예술로 표현해온 그녀는 한국인으로서 드물게 현대미술의 최대 이슈 중 하나인 '비물질성'을 주제로 다루는 작가라는 인정을 받고 있다.

〈산책〉, 2013 oil on canvas, 227 x 162 cm



〈여름의 끝 3〉, 2013 oil on canvas, 115 X 115 cm



노충현 作 산책

노충현 작가가 그려내는 공간은 대도시 서울 속,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장소들이다. 너무나 익숙하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곳을 마치 이 세상에 없는 곳처럼 몽환적으로 그려내는 것이 그림의 방식이다. 2005년부터 〈살풍경〉을 주제로 선보이는 이 작품들은 사전적 의미로 '몹시 쓸쓸하고 고요한 정경'이란 의미를 지닌다. 이번 연작의 배경은 작가가 자주 거닐던 합정역 부근의 한강시민공원. 작가에게 한강시민공원이란 밀도 높은 도심과 달리 비어 있고 한적하며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장소다. 작품은 이곳에서 보낸 작가의 개인적인 시간들은 재현하고 있지만, 고유의 회화적인 변주를 거쳐 색다르게 묘사되었다.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을 마치 어디에도 없는 장소처럼 표현해낸 것이다. '살풍경'이라고 이름 붙이기엔 묘하게도 아름다운 실재와 환상의 조화 속에서 희미하게 새어 나오는 희망의 빛을 발견하는 건 관람자의 몫이다.